e 행복한 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NUAC Webzine Vol 35 | 2015.12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

포커스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더보기 →

통일 돋보기

가을 단풍 막바지,
남북한 5대 명산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음악 혼 '유진박'

통일 Talk

통일 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있는
엄마를 만날래요

행복한 동행

어깨동무맴토링은
17기에도 계속됩니다!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

'골든벨'로 이룬
생활 속 작은 통일!

Today 남북

북한에 부는 '한류'는
어떻게 왔으며, 어디쯤 있을까?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남북간 벽,
축구로 허물었어요!

평화통일 문화 한마당

통일의 빛, 북한의 한류!
'평화통일 문화 한마당' 개최

Uni Maker

청년들의 통일 열정이 빛났던
Uni Maker 시즌1

NUAC News

'2015 한·호평화통일포럼' 성료

느낌 있는 여행

오직 마음만 넘어 갈 수 있는 '그 곳'
DMZ트래킹

통일 웹툰

사랑이 꽃피는
통일 대한민국!

통일 레시피

추운 날엔 따뜻한 닭국물
평양온반

이벤트

1. 2025 타임캡슐 이벤트
2. '통일의 별'을 찾아라

정부 3.0

웹진평가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으신가요?

오피얼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이벤트 당첨자발표 >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 02-2250-2300

구독신청 | 지난호보기 | 구독해지 | 웹진개선의견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

조 양 현(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베이징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된 후 조어도 문제로 중일관계가 냉각되어 중단된 지 약 3년 반 만에 재개된 만큼,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따라서 금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통해 3국 협력의 추동력을 복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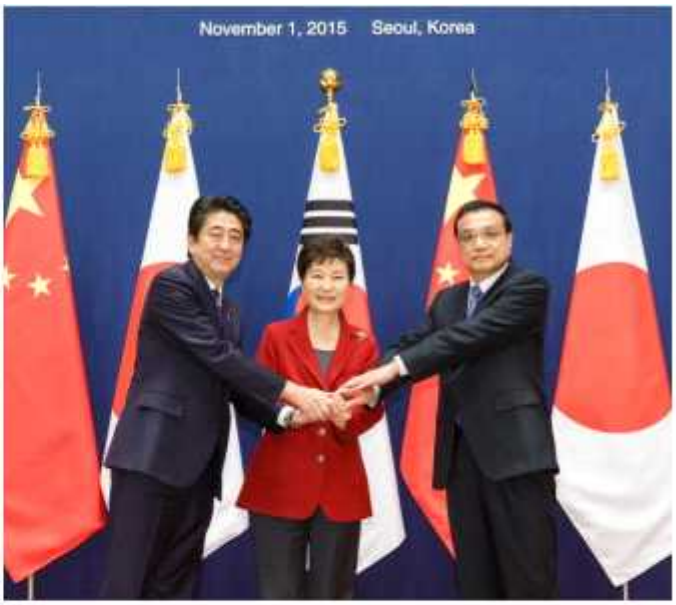
한국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상징인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회의의 정례화라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회의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중일 간의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사회 공헌 부분에서 논의와 의견 접근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중국경사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미중일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금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이다. 박대통령은 의장국의 수반으로서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중국과 일본의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금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이다. 박대통령은 의장국의 수반으로서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중국과 일본의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중정상회담(10월 31일)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북핵 불용(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인식 및 공조체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정상회담(11월 2일)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등 다자 외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북한 문제 관련 한미중 3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의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 10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금번 한중정상회담은 북핵 및 북한 관련 한미중 차원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번 3국 정상회의는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외교의 존재감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여름 북한의 DMZ 도발, 중국 전승절 행사 등으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미중), 한미 등 양자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의제 설정을 주도하면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로 미·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일 간 중개자적 역할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외교적 전략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불용 및 도발 억제라는 3국간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 나타난 한·중·일의 입장 차이는 3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관계의 냉각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국이 금번 3국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 정책 관련 3국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3국의 공동 입장을 확인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일 양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특히 한중 양국 간에 역내 지역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한 축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일 양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특히 한중 양국 간에 역내 지역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한 축이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 연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으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향후 인프라 건설, 금융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미중일 간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열강에 비해 국력이 열세인 한국은 중견국 외교, 전방위 외교, 중개자 외교가 현실적인 선택지이다. 다자외교, 전략외교, 실용외교를 꿰뚫는 외교력을 키워 지역질서의 트렌트 세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준비된 적극 행보'로 외교적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대북 정책 관련 관계국 간의 정책협의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방안,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활성화 방안, 북한 도발시 공동 대응책 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 청와대〉

가을 단풍 막바지, 남북한 5대 명산은?

지리산(智異山)
전북·전남·경남, 천왕봉 1,915m
• 불교문화의 요람지로 화엄사와 연곡사, 쌍계사 등에 각종 문화재가 보존돼 있으며, 피아골 계곡이 단풍의 백미로 꼽힘
• 노고운해·피아골단풍·반야낙조 등 지리산 10경이 명소
한라산(漢拏山)
제주특별자치도, 혈망봉 1,947m
• 영실코스의 병풍바위, 관음사코스의 용진각계곡 단풍이 가장 유명
• 백록담, 윗세오름, 삼각봉, 영실병풍바위, 사라오름 등이 명소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음악 혼 '유진박'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비운의 천재'로 불리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 유진박.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 미국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공연은 연속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소속사 문제로 내리막길을 걷던 그는 최근 팬들의 응원과 더불어 데뷔 당시 함께 했던 이들과 조우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음악을 가지고 대중 앞에 섰다.

장르 넘나들며 즉흥 전자바이올린 연주 선보인 '음악 천재'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밴드도 생겼고 얼마 전에는 일일드라마 사운드트랙 OST도 연주했어요."

11월 8일 서울시 '문화가 흐르는 서울 광장-굿바이 콘서트' 참가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만난 유진박은 오랜만에 밴드와 함께해서인지 상당히 들떠 있었다. 오프닝 공연을 맡은 유진박과 밴드 구성원들은 무대 음향장치를 점검하고 호흡을 맞춰보느라 분주했다. 마침내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우비를 입은 채 그의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을 향해 유진박은 열정적으로 바이올린 현을 켜기 시작했다. 때론 슬프고 느리게, 때론 빠르고 강렬한 속주를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그에게 관중들은 환호했고 앵콜을 연호했다. 음악에 몰입해 있는 유진박에게 현실의 그 어떤 것도 결코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5년 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며 10살 땐 세계적인 웨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13살 때는 링컨센터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줄리어드 스쿨 콩쿨 우승, ISK 컴피티션 대상 등 6개 콩쿨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16세에 전자바이올린을 시작한 후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유진박은 미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슈퍼볼 전야제 축제장에서 연주를 했고 베넷사 메이와 함께 마이클잭슨 공연에 출연하기도 했다.

소속사 및 건강문제로 힘든 시기 이겨내고 '부활 기지개'

오랫동안 국내에서 인기를 구가해왔지만 모든 스타들이 그러하듯 점점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줄어들 무렵 유진박은 2009년 소속사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게다가 20대 초반부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왔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됐다. 설상가상으로 올 1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친인척들의 요청으로 데뷔 때 함께 했던 김성철 대표와 손잡으면서 유진박은 부활을 시작했다.

'둘이 눈만 뜨면 붙어있다'는 김성철 대표는 유진박에게 먼저 밴드를 찾아줬고, 그의 바이올린 연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곡해 콘서트장을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시작된 일일드라마의 타이틀곡을 연주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음악가들은 스펀지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해요"

유진박에게 음악이란 '숨쉬기'다.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란다. 특히 유진박은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즉흥 연주를 선호한다. 미리 정해진 악보나 프로그램 없이 사전에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끼리 호흡을 맞추면서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밍(Jamming)의 경험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았다.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가 있어야 해요. 폴 매카트니가 건즈 앤 로지스나 스팅과 함께 콜라보 공연을 하는 것처럼, 국악이나 색소폰과도 공연해보고 여러 가수들과 콜라보도 하면서 음악 스킬과 릴레이션십을 많이 배워야 해요. 악기 들고 있는 사람들 항상 스킬을 키워야 하고, 스펀지처럼 항상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음악을 통해서 난 론리하지(외롭지) 않아요."

통일도 평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유진박은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를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로 꼽았다. 그래서 지미 헨드릭스와 밥 딜런이 초창기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던 카페 Wha에서 하우스밴드와 오랫동안 연주를 했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뿐 아니라 우드스톡 페스티벌을 주도하는 등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의 이미지 또한 사랑한다.

"중요한 건 평화에요. 저의 2집 음반의 타이틀도 '피스'로 정했잖아요. 장난 치다가 친구 사이에도 때릴 수 있는데 그것도 폭력이에요."

지난 10월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청년 한마당'에서 공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통일 역시 그런 평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슬픈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간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떠오르니까요. 한국과 북한은 한 나라였으니까 대립하지 말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남북간에 커넥션을 이루면서 통일을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크로스오버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진박

유진박의 음악은 자유롭다. 장르와 관계없이, 어떤 악기와도 접목을 시도하며 끊임없는 크로스오버, 퓨전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그는 이제 음악에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실을 수 있게 됐고 원숙미가 더해졌다. 흐트러졌던 연주력이나 연주 폼은 금세 제자리를 찾았고 '흥'에 사로잡혀 무대마다 새로운 느낌의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무대는 그가 숨 쉬는 공간이자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비록 힘든 길을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유진박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많은 음악팬들이 있는 나라 한국에서 다시 한 번 재기를 꿈꾸고 있다. 그가 개인적인 불행을 털고 그의 음악 속에 평화와 자유로움을 한껏 담아 대중 앞에서 화려하게 비상할 날을 기대해 본다.

통일 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있는 엄마를 만날래요

두리하나 국제학교 '와글와글합창단'

서울 방배동 두리하나 국제학교 1층 연습실에 열 댓 명의 아이들이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자, 다들 집중하고 '가다가 힘들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잘재잘 속닥속닥 수다를 멈추지 않는다. '간밤에'를 '가밤에'로, '마음들은'은 '마은드는'으로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발음을 교정하려고 애쓰는 동안 수업이 늦게 끝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상기된 얼굴로 연습실에 들어온다.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 둘 자리를 매우고 나니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8세에서 18세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 단원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탈북과정에서 헤어져 고아가 된 아이들, 혹은 탈북 여성의 자녀들이다. 저마다 마음에 깊게 패인 상처들을 하나씩 안고 있는 아이들은 합창을 통해 화합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 통일토크 참가자 •

구기원(17, 반장)

김화(17)

김혜송(16)

박수련(15)

임유나(15) 황윤미(14) 박지훈(14) 조원명(9)

와글와글합창단, 해보니까 어때요?

유나 ▶ 남한에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처음에는 낯가림이 엄청 심했어요. 계속 쏠쏠하단 생각만 들고 친구 많은 애들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대구합창대회에 갔을 때 제 앞에 앉은 오빠 언니들이 저랑 장난도 쳐주고 이름도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요. 제 이름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 때부터 갑자기 친해졌어요.

화 ▶ 저도 처음 왔을 땐 애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항상 같이 합창하면서 인사하고 매일 어울릴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서로 무엇이 힘든지 알 수도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나간 대회가 KBS 전국민합창대회였는데 친구들이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고 '아 나도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전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착한 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너무 착하니까 저도 따라서 착해지는 것 같아요.

기원 ▶ 저도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거의 한두 달 집에만 있었는데 2013년도에 이 학교에 오게 됐고 애들과 함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또 합창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빨리 배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합창 공연과 노래는?

유나 ▶ 광복 70년 경축 전야제 때 서울시청광장에서 이승철 선생님과 합동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잘하지도 못 하는데 박수를 쳐주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기원 ▶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공연을 했을 때 관객 쪽을 내려다봤는데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어요. 우리 합창단의 노랫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때 울 뻔 했어요.

윤미 ▶ 저는 '터'라는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좋아요. 이 노래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하던데 불러보니까 와 닿는 것도 있고, '나도 이제 한국에 조금씩 적응해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와글와글합창단 아이들의 통일, 그리고 북한 생각

원명 ▶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해도 돼요? 저 여섯 살 때요, 밤에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잠자다가요. 일어나니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댔어요. 심장마비에 걸렸대요. 엄마가 가끔 보고 싶고 아빠 형아 나만 왔는데 누나와 친척들도 보고 싶어요. 그래도 남한에 와서 아빠가 휴대폰을 사줘서 좋아요.

화 ▶ 북한엔 굶는 사람,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처럼 중국의 농촌으로 팔려가고 원하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힘들게 왔는데 통일이 되면 탈북하지 않아도 되고 슬플 일도 없을 것 같아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혜송 ▶ 북한에서 언니랑 헤어져 혼자가 됐는데 외삼촌의 도움으로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중국, 태국을 거쳐 하나원에 왔더니 언니가 있었어요. 전 통일이 되면 아빠 묘에 한 번 가고 싶어요. 산에도 올라가보고 싶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산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수련 ▶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서 엄마를 만날 거예요. 통일이 안 되더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진성 ▶ 전 혜산에 가서 친구들과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압록강에 친구들이랑 수영하러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와글와글 아이들의 '나의 꿈 나의 미래'?

유나 ▶ 전 실내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조각가가 될 거예요. 학교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직업체험학교에 데려가주셨어요. 실내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저랑 적성에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방면으로 소질을 개발하려고요.

수련 ▶ 저는 꿈이 좀 많아요.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심리상담사, 그러다가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며칠 전에 찾은 꿈은 두리하나국제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런 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원 ▶ 우리 같은 아이들을 구출해주고 한국에 데리고 와 돌봐주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학교에 온지 얼마 안됐을 때는 한국말도 못하고 뭘 잘 몰랐는데,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너무 좋게 느껴져요.

화 ▶ 국제변호사와 심리상담사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사실 변호사는 부모님이 원하셔서 생각해 본거고 실제로는 청소년 심리상담사가 되어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더라도 이 학교에 와서 계속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여기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요.

어깨동무멘토링은 17기에도 계속됩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 • 전북 전주시협의회 • 부산 사하구협의회

민주평통은 지난 16기에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일환으로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정착을 돕는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각 지역 자문위원들은 탈북청소년들과 1:1 결연을 맺고 다양한 멘토링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로 많은 멘티 아이들의 그늘진 표정이 밝게 바뀌었고 자존감도 크게 향상됐다. 17기 출범 이후 멘토단을 재정비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협의회들이 있어 소개해 본다.

중랑구협의회 "24쌍에서 17기엔 30쌍으로 멘토링팀 늘어"

서울 중랑구협의회는 지난 16기 동안 24쌍의 멘토-멘티팀을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올해 1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총 30쌍으로 늘려 멘토-멘티결연식을 가졌다. 중랑구협의회 멘토링의 특징은 초중고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탈북민들에게도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멘토링사업을 맡은 여성분과 위원들은 월례회의를 통해 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멘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어냈다. 명절이나 김장철의 나눔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문화체험 등을 병행하고 있다.

꾸준한 활동 덕분에 지역 내 탈북민들은 자신이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통일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누구나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연을 말없이 들어주며 어루만져주는 것, 그게 바로 중랑구협의회 멘토단의 역할이다. 스스럼없이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남북한주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난 2년여 간의 멘토링 활동은 많은 미담들을 낳았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55세의 탈북민 김영철(가명) 씨의 경우 교육상담과 청소년 재소자 심리당담을 맡고 있는 멘토자문위원이 멘토링을 맡으면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감을 얻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으며 남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을 꿈꾸게 됐다. 탈북대학생 선영(가명)이는 영어공부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멘토 자문위원의 후원으로 학원비를 지원받아 공부한 결과 9개월간 시드니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중학생 연호(가명)의 경우 멘토링에 참여는 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연호 엄마는 사춘기를 겪는 아들이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다며 멘토 자문위원에게 하소연했다. 멘토 자문위원의 조언에 따라 엄마는 주말에 한 번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친밀감이 깊어져 예전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다.

전주시협의회 "이미 이웃이 된 탈북민, 멘토단도 늘어나"

전주시협의회는 '통일맞이 하나-다섯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탈북민 멘토링을 구상하고 있었다. 일단 결연식을 맺고 초등학교 4명을 포함해 8명의 아이들을 멘티로 맞이했지만, 자문위원들과 학생간 나이차가 많다보니 1:1 멘토링이 어렵다고 판단, 남녀 자문위원 1명과 대학생 1명을 한 팀으로 이뤄 1:3 멘토링 결연을 맺었다. 또한 아이들이 혼자 멘토링활동에 나오기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까지 한 팀으로 묶어 2:3 멘토링을 지속해왔다. 이후 전주시협의회의 멘토링이 잘 이뤄진다는 소문을 듣고 두 가정의 탈북청소년과 엄마가 참여하길 희망해서 17기에는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멘토링은 지역문화 탐방과 역사체험을 비롯해 영화, 뮤지컬, 스포츠경기 관람 등 단순한 학습보다는 여러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윤봉길의시기념관과 김좌진 장군 묘역을 돌며 역사공부도 하고 체험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에는 민주평통 통일한마당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 '탈북민정착지원금 마련 바자'를 열었으며 올 연말에는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멘토링 평가와 소감을 듣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김분호 정착지원분과 위원장은 멘토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거리감이 많았지만, 이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되는 이웃이 됐다고 말한다. 김분호 위원장은 "멘티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활동도 몇 번 있었지만 엄마들을 참여시켰더니 호감도 높고 참여율도 높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하구협의회 "멘토단 새롭게 정비, 12월 7일 결연"

사하구협의회는 11월 정기회의에서 멘토링단을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경찰서 보안계에 의뢰한 결과 6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소개받아 17기 멘토-멘티 결연식을 12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하구협의회에서는 조병철 멘토자문위원(간사)의 멘토링 활동이 눈에 띈다. 조병철 자문위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강원이(가명)의 멘티가 됐다. 강원이는 정식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아이였다. 엄마가 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린 남자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이유도 없이 30여 곳을 찔렸고 이를 말리려던 아빠마저 중상을 입었다. 겁에 질린 강원이가 112에 연락해 경찰이 들이닥쳤지만 성호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항공회사를 퇴직하고 심리상담을 하던 조병철 멘토 자문위원은 이들 가족을 매달 2~4번 가량 만나면서 심리치료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조 위원은 강원이의 이름이 특정 지역명과 같아서, 그리고 중국 말투를 쓴다고 해서 놀림을 자주 당한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개명해줬다. 또한 병문안을 가거나 생일을 축하해주는 등 강원이를 세심하게 챙기면서 가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빠는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엄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말을 잘 안하던 강원이는 이제 '까분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밝고 명랑해졌다. 강원이는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다. 식사하다 말고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하고 묻자 조 위원은 "아프지 말고 네가 잘하는 축구도 열심히 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영어 실력도 갖춰나가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줬다. 조 멘토자문위원은 '아이들은 멘토가 이끌기 나름'이라며 멘토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와 결연된 멘티를 자식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내 시간 좀 뺏긴다고 소홀하면 아이들이 서운해 하거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딨습니까? 정말 따뜻하게 포용해줘야겠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해요."

〈글. 기자희〉

‘골든벨’로 이룬 생활 속 작은 통일!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 함께 모여 통일을 기원하는 골든벨 행사가 안산에서 열렸다.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열기는 뜨거웠지만, 여느 퀴즈 프로그램처럼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은 없었다. 대신 팀원들 간 오가는 대화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으며 댄스 배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안산 송호고에서 열린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는 11월 7일 안산 송호고등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서남봉사단, 안산시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날 유오복 안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특화사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통일골든벨 행사가 안산지역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은 물론, 쌍방향 소통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종길 안산시장, 성준모 시의회 의장, 황인득 경기중부 하나센터장 등 안산시 각계의 대표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팀원 모두 협동해 문제 푸는 통일골든벨 대회

골든벨 퀴즈대회에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서남봉사단, 자문위원이 5명씩 짝을 이룬 30개 팀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30개의 통일·역사 관련 퀴즈가 출제됐다. 문제를 맞힌 사람만 자리에 남는 기존의 퀴즈대회 룰과 달리 모든 문제를 함께 풀고 가장 고득점을 차지한 팀이 1위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 북한, 역사 외에도 안산지역의 문화,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팀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팀별 댄스 배틀', 작은 신문지 위에 팀원 모두가 올라서는 '신문지 게임' 등이 진행돼 팀원 간 거리감을 없애고 화합할 수 있도록 했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평양예술단 출신 북한이탈 가수 김복주의 무대가 펼쳐져 행사장을 흥겨운 '춤잔치'로 바꿔놓았다.

퀴즈 대회 종료 후 장기자랑과 시상식 이어져

이어진 2부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치열한 팀별 대결이 진행됐으며, 주사위를 굴리고 미션 카드를 뽑아 보너스 점수를 받는 '주사위 게임'이 열려 낮은 점수의 팀이 한방 역전을 노리기도 했다.

퀴즈 대회가 끝난 뒤 마련된 참가자 장기자랑 시간에는 참가자들 개인의 노래자랑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합창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안산시 태권도 시범단은 고난도의 격파시범을 비롯해 품세 시범, 태권도 댄스 등을 선보여 청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은 폐회식 후 '손에 손잡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손을 잡고 원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지역사회에서 출발하는 작은 통일을 이룰 것"

정성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안산에는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이 타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협의회에서는 이분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이번 골든벨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번 행사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은 정성헌 사회복지 분과위원장은 15기부터 자문위원직을 맡아 북한이탈주민과 안산 시민들 간 소통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부재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문위원을 한 팀을 구성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통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정 분과위원장은 "이번 골든벨 행사처럼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행사들이 많아진다면,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도 곧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쏘기로' 했죠!

[4팀] 서승우(대한적십자), 박혜연·왕미자(자문위원), 정우애·이경란(탈북민)

이날 골든벨 행사장의 30팀 중 가장 돋보인 팀을 꼽는다면 4팀일 것이다. 다른 팀들은 아직 서먹서먹하던 행사 초반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제를 푸는 내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등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했다.

서승우 : 봉사도 하고 싶고 행사 취지도 좋아 참석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열심히 대화를 나눴죠.

정우애 :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니 매우 기쁘고 좋았어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알게 된 우리 팀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경란 : 한국에 와서 '그저 삶을 살아가나 보다' 하던 차에 골든벨에 나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박혜연 : 문제에 틀리거나 게임에 졌을 때 힘을 합쳐 다음엔 더 잘해보자고 했던 게 도움이 된 듯 해요. 그 과정에서 팀워크가 생겼고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왕미자 : 오늘 행사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번호도 다 교환했죠. 지금도 서로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글/사진. 김규성〉

'한류(韓流)'란 한마디로 한국에서 유행하고 인기를 끈 각종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한국의 물결' (Korean wave)로 부르면서 정착된 단어이다.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한류(韓流)'가 폐쇄체제 북한에도 물밀듯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다.

한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까지 전파돼

북한 내에서도 평양, 평성, 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 등 중국과의 접경지역과 대도시는 한류의 온상과 같은 지역이다. 영화, 드라마, 가요, 가전, 생활용품, 패션, 음식 등 그야말로 생활과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각종 아이템이 인기상품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류 현상이 대도시와 접경지역을 넘어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다.

과거 당 간부나 부유층 등 상류계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불었던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이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일반 서민계층에게까지 일반화된 추세다. 한류 열풍이 북한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 계기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북한에 닥친 기근과 극심한 경제위기 등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북한주민들의 생존본능이 한류현상을 불러왔다. 심각한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배급마저 망가진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장마당이라 불리는 자생적 시장을 형성, '거래'란 것을 개시하면서 철옹성 같던 북한사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식량만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의 물품이든 시장에 들어오고, 순식간에 소비되어 사라지는 자본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의 경험을 통해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학습효과를 갖게 된 것이다. 돈이면 '주체사상'도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배운 것이다.

척박한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남한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는 북한 주민들의 척박한 현실, 지친 몸과 마음이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안식처로 자리잡은 셈이다. 북한당국이 철저하게 단속했지만 좋은 것을 보고 누리며 안식을 찾는 본능마저 억누르기란 불가능하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에 열광하는 반응은 자연스런 일이 된 것이다.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 헤어스타일, 패션, 가전제품, 음식까지 온갖 붐이 일어난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이다.

북한에서는 CD-ROM과 DVD를 통칭하여 '씨디알'(또는 '알판')이라 부르는데, 노트북 컴퓨터와 '씨디알', 혹은 컬러 TV와 재생기 또는 '씨디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한 드라마 시청이 가능하다. 가격이 가장 싼 것은 중국산 중고 TV나 재생기, 중국산 중고 미니 노트북 컴퓨터로, 값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의 경우 이 정도는 갖추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다. 당·군·정의 간부층 상당수가 한류 애호가들로부터 압수한 영상 콘텐츠를 소각하지 않고 직접 시청하거나 되팔기까지 한다는 소문은 공공연하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도 성룡의 액션영화와 007시리즈를 좋아한다고 한다.

식초와 고추장 소주까지 한국산 제품 인기 독차지

최근엔 남한 분유를 테이프로 감아서 밀반입하고 학기 초가 될 때마다 한국산 학용품을 찾는 손길이 부쩍 늘었다고 알려졌다. 초코파이, 신라면, 커피믹스 등이 북한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요즘에는 식초와 고추장에 이어 한국소주까지 북한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장마당에서 한국산 화장품 등은 요주의 단속 대상이지만 고추장은 식료품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진짜 한국산 물품은 단속되면 곤란하지만 한국산 가짜 상표를 붙이고 팔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질책만 받을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30~40대 젊은 엄마들 중에는 한국의 과외열풍을 보고 자녀들에게 개인교사를 붙여 공부시키거나 집안이 비슷한 부모들끼리 모여 실력 있는 대학교수들을 초빙, 학원형태의 방과 후 학습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한류, 남북한 문화적 통합 위한 촉매 역할 기대

고전학파 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세이'의 법칙)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수령제 공산주의 폐쇄체제 북한에서는 시장(장마당)을 통해 높아진 수요는 어떻게든 반드시 공급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 중심에 한국의 온갖 물품과 문화가 깔려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인간관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해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봉인 수령옹호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북한식 인간관과 본질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더욱 그 영향력이 확산돼 가고 있는 한류는 폐쇄된 북한 사회와 체제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잠재된 힘으로 자리 잡았다. 한류를 통해 남한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향유한 북한주민들 마음에서 남한문화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정이 누그러뜨려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된 남한의 대중문화와 생활 콘텐츠가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예측도 어렵지 않다.

한류로부터 형성된 자본주의적 감성과 새로운 미적 감각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집단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는 북한사회의 저변으로부터 변화를 견인할 사회적 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북한 내 한류 현상은 남북한 간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사진제공 : SBS, 연합뉴스〉

남북간 벽,
축구로 허물었어요!

현우(가명, 함경북도 청진, 2010년 탈북)는 엄마가 계시는 남한으로 오면서,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 준 이모, 그리고 '가을동화'의 배우 송혜교를 닮은 예쁜 여자친구와 이별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처음 손에 쥔 날, 걱정하고 있을 북한의 이모에게 전화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는 현우. 그리운 마음은 그리운 마음대로 마음 한 켠에 접어두고 남한사회 정착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인간관계 배울 수 있었던 축구동호회 활동

요즘 야구 프리미어리그12 우승이 화제다. 한국시리즈마저 끝나서 텅 빈 구장이 마냥 아쉬운 사람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인데, 현우는 아무래도 낯선 야구경기보다는 축구나 탁구가 더 재미있단다.
"남한에 와서 우리 고향 사람(탈북민)에게 영어 배와주는(가르쳐주는) 학원에 다녔는데 금요일에 몇 시간씩 함께 여가활동을 하면서 탁구를 쳤어요."
북한에서는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설 탁구장을 이용하려면 시간당 50원 씩(2010년, 함경북도 도시 기준)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었다. 물론 진짜 탁구대 대신 평평한 시멘트 위에 네트 대용품을 세워놓고 즐기기도 한다고.

현우는 3년 째 남북한 학생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친목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고향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북한 사람 남한사람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아 좋아요. 남한 형들은 하나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너 하나원 몇 기야?' 하면서 말을 걸거나 북한말을 따라 하기도 해요."
혹시 서로 쓰는 축구 용어가 달라 경기를 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었더니 '있다'고 했다.
"코너킥을 우리 고향에선 구석차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축구 끝나고 한 남한 형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형들도 코너킥 대신 구석차기라는 말을 써요.(웃음)"

북한에는 축구동호회가 따로 있진 않다고 했다. '구락부' 단위로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도 단위 팀으로 올려보내고 거기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 국가대표로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 활동이 쉽지 않다고 했다.

"만약 제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축구선수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배운 지 얼마 안돼서 축구기술은 좀 떨어져도 드리블만은 진짜 빠르거든요."

▸▸▸ 영화관에 처음 간 날 '눈총 받았어요'

현우는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돼 대안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친구를 사귀게 됐다. 그는 친구와 처음 영화를 보러간 날, 영화표를 구입하다 당황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한에 온 지 세 달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줄을 서서 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가서 표를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눈총을 쏘더라고요(째려보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있었는데 안내원이 줄을 서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티켓에 적힌 좌석을 찾아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사방이 어두운데다 배열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영화관에 들어간 현우와 친구는 일단 큰 스크린에 압도됐고, 의자가 움직이거나 바람이 나오는 4D영화관 시스템이 매우 신기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영화 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그날은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화려한 액션이 눈앞에 펼쳐져 더욱 흥미로왔다.
"물론 처음에는 주인공들 이름도 잘 모르겠고 내용 파악도 어려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리 인터넷에서 예습을 해갔어요. 줄거리도 찾아도 보고 주인공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해보고요."

현우에게 그동안 본 영화 중 어떤 작품이 재미있었냐고 묻자 "한국 영화는 사랑이야기나 실제 생활 속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대부분 감명깊게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차인표 주연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어요. 북한사람의 탈북과정과 중국체류, 한국 정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진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울면서 봤던 것 기억이 나요."

▸▸▸ 송혜교를 닮은 여친,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현우에게 북한은 그리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릴 적 엄마와 헤어진 후 이모 댁에서 자랐다가 남한에 정착한 엄마의 연락을 받고 탈북한 현우. 처음 휴대전화를 받았을 때 게임이나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보다는 북한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한다.
"사실 엄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이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았거든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모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한에 가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셨어요. 엄마랑 같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도 놓이신다고요."

스무살 무렵 북한을 떠난 현우는 북한에 예쁜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와야 했다. 당시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TV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한 배우 송혜교의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운 좋게도 송혜교를 닮은 여학생과 사귈 수 있었다. 왜 함께 남한으로 오지 않았냐고 묻자 현우는 "너무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저는 혼자니까 훌쩍 떠나면 되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도 계시고 탈북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때문에 그 친구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잖아요. 떠나는 날 밤, 차마 간다는 말은 못하고 몇 마디만 얘기만 나눴어요.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니까 오빠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라고요."

현우는 그녀도 아마 짐작은 했을 거라고 말했다. 당시 현우 엄마가 중국에 계셨고 엄마와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걸 여자친구도 아는 터였다. 떠난다고 말하고 싶어도 보위부에서 여자친구에게 제재가 들어갈 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았다는 현우.

"여친도 이젠 20대 중반이 됐을 텐데 지금쯤 무얼 하고 지낼까요? 아마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글. 기자희〉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고, '문화의 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타인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던 백범 김구 선생.
그의 말처럼 '한류'라 이름 붙은 '남한 문화의 힘'이 폐쇄된 북한 땅의 주민들의 고단함과 시름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한민족 간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며 '평화통일'이라는 찬란한 빛을 내뿜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요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북한 내 한류의 영향력을 가늠해보는 문화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류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새 물결 일으키길

민주평통은 11월 4일(수)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자문위원과 일반시민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통일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통일을 한류와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마련된 평화통일 문화 한마당' 행사는 우리예술문화원과 통일문화연구원, 한국국악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으며 광복 70주년 기념사업회와 K-TV 국민방송이 후원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민족의 이질성이 깊어지고 있는데 민족 면면에 흐르는 문화적 DNA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면 70년 분단의 벽을 뛰어넘어 남북한 주민이 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라종억 문화예술체육위원장은 개회사에서 "88올림픽이 동구권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것처럼 문화는 해일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며 "한류가 큰 빛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져서 희망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 통일에 이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문화·예술이야말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효율적인 미디어"라며 "남북 학생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하나의 무용단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 라종억 문화예술체육위원장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1부 통일토크콘서트 '북한에 부는 한류, 통일을 부른다!'

먼저 행사 1부 '통일토크콘서트'는 '북한에 부는 한류, 통일을 부른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이보연 씨 등이 패널로 등장해 한류가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류 전문가인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에서의 한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롯해 한국의 영상물의 전파 경로와 시청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이 영상물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전기배터리, USB, MP5(엠피오)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에서 제작된 화면터치방식의 핸드폰을 직접 갖고 나와 소개하며 통신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영상물을 보기위해서나 체면 때문에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북한의 변화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 통일토크콘서트(왼쪽부터 전영선 건국대 교수, 강동완 동아대 교수,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이보연 통일교육원 강사)

탈북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곽종문 교장은 탈북 청소년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한 한류와 그 한류가 남한사회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곽 교장은 요즘 북한 내 한국 드라마나 가요의 유통 속도가 빨라 오히려 제3국에서 온 아이들보다 탈북학생들이 한류를 접하는 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회령교원대학 출신의 탈북민 이보연 씨는 탈북 전 북한에서 보고 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선(아랫동네)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수많은 탈북민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가요의 경우 예전에는 트로트를 많이 들었지만 요즘 세대는 엑소, EXID 등 새로운 아이돌그룹의 노래를 잘 따라 부를 정도로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영선 교수는 "한류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해도 문화적 욕구까지 통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한류가 통일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을 향해 전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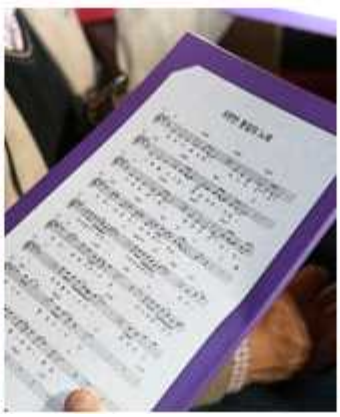
2부 문화공연 시간에는 서예 퍼포먼스와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공연, 창작뮤지컬 등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성근 화백(건국대 초빙교수)은 '경계를 넘어 질주하는 말'을 통해 벽을 넘어서 힘차게 뻗어가는 한류의 바람을 형상화했다. 이 화백은 "눈에 보이는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성까지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 유일의 단일 악기 오케스트라인 '70인조 바이올린 오케스트라'는 '남북이 함께하는 노래'로 고향의 봄, 이슬비, 햇볕은 쨍쨍 등 동요와 가요를 연주하며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연주할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예술문화원의 전통창작뮤지컬 '아리랑의 소리&애국소녀',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아! 아리랑'은 우리의 전통 무용과 소리를 현대화해 간절한 통일의 염원을 표현해 냈다.

민주평통의 '8천만 통일의 노래' 다 같이 합창

한편 이날 행사의 대미는 민주평통이 자체 제작한 '8천만 통일의 노래' 합창으로 장식됐다. '8천만 통일의 노래'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4일 열린 'DMZ평화콘서트'에서 시범적으로 발표한 곡을 좀 더 대중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가다듬은 것으로, 소프라노 이민영과 테너 엄세준이 먼저 공연한 후 참가자 전원이 직접 함께 불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민주평통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리어져 왔던 '우리의 소원'(1947년 발표)이 슬픈 정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통일희망을 담을 새 통일노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널리 사랑받고, 친근하게 불릴 수 있는 새 통일노래를 만들었다. 앞으로 '8천만 통일의 노래'가 남북한 및 재외동포 등 8천만이 애창할 수 있는 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글/사진. 기자희〉

오늘 행사 이렇게 봤어요!

심진성(탈북민, 숭실대학교, 사진 왼쪽) = 저도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한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 한류와 함께 북한 문화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근 화백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랐는데 아직도 통일을 못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다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어요. 빨리 통일이 되길 바래요.

이수빈(한예종 영재교육원),
고소현(광명광천초등학교) = 오늘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주제의 공연인데 준비하면서 몰랐던 민요 등을 알게 돼서 좋았고 '우리의 소원'이란 곡을 연주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수빈).
꼭 하고 싶었던 공연이라 신나고 기분이 좋았어요. 민주평통 아줌마, 아저씨들 통일 꼭 이뤄주세요.(소현)

청년들의 통일 열정이 빛났던 Uni Maker 시즌1

직접 만들고 공감하는 신개념 통일 프로그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기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였어요!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민주평통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크라운해태연수원(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청춘들의 통일 프로그램 'Uni Maker 시즌1'을 진행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14개 대학에서 49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청년 나름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높은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11일 아침 8시 학생들은 용산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조별로 인사를 나눈 뒤 Take1 '나도 통일을 준비한다' 미션을 시작했다. Take1은 통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7개 조는 각각 △온라인 통일박물관 만들기 △북한 음식 전문점 홍보 메뉴판 만들기 △탈북민의 남한 정착 성공스토리 만들기 등의 미션을 선택해 수행했다. 모든 프로그램과 메시지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으며, 활동 모습과 미션 수행과정 소감 역시 페이스북페이지(바로가기)로 모아졌다.

짧은 시간 안에 이산가족 상봉 주제로 영상 제작도

연수원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Take2 우리는 친구다'시간에 조 이름과 구호를 정하고 Take1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성공스토리 만들기' 미션을 수행한 6조는 힙합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알렸던 탈북래퍼

강춘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조는 탈북민 출신의 택배기사와 간호공무원, 서울대생 허준 씨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쓴 픽션을 선보이며 "여러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그들만의 희망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음식 전문점 홍보 메뉴판 만들기' 미션을 선택했던 4조는 북한음식전문점에서 직접 음식을 맛보고 온 뒤 즉석에서 PPT자료를 만들었고 북한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한 김종민 학생의 발표로 '평양 옥류관'의 레시피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5조는 가상의 북한음식점 '아띠(친구의 고유어)'를 창업하고 북한음식으로 이뤄진 메뉴판을 선보였다.

'온라인 통일박물관 만들기' 과제를 받은 2조는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연기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아픈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비를 맞아가면서, '신상' 신발까지 버려가면서 연기하고 촬영하고 편집했다는 이 작품에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7조는 통일 후 세워진 박물관의 맨 꼭대기 층에 경의선 철도 복원, 남북한 단일국가 UN 재가입과 관련한 내용의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흥겨운 북한말 퀴즈대결 & 북한음식 만들기

'Take3 남을 알고 북을 품다'는 통일대북정책 관련 퀴즈와 북한어 맞추기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북한말을 노트에 빽빽이 메모해 와 예습을 하던 1조는 이날 진짜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북한말 맞추기 경연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개수의 문제를 푸는 팀이 이기는 경기로, 내야수(안마당지기), 로터리(도는 네거리), 화장품(살결물), 투피스(나뉜 옷) 등의 북한말이 출제돼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Take4 청춘! 밥상을 차리다' 시간에는 이애란 박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의 지도로 속도전 떡, 입쌀만두, 두부밥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었다. 6조는 '북한의음식이 낯설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 친숙하게 다가왔다'고 밝혔고 2조는 '입쌀만두를 만들었는데 만두 피가 생각보다 두꺼웠지만 맛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7조는 '두부밥은

북한의 전통음식이 아니라, 고난의 행진 당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배고픔의 상징이라고 들었다'며 새로 알게 된 지식을 서로 공유했다.

평화통일을 향한 꿈과 열정을 노랫가사에 담아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Take5 '통일을 부르는 노래'였다.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의 꿈, 통일을 향한 열정을 음악에 담아 함께 공유했다. 박진영의 허니를 개사한 5조는 노랫말에 맞춰 깜찍한 율동을 선보였고,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을 개사한 3조 공연에서는 모두가 일어나 음악에 몸을 맡기는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6조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트로트를 맛깔나게 개사해서 흥을 더했고 7조는 '질풍가도'를 '통일가도'로 바꿔 '한반도에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가겠다'고 노래했으며 재미교포 대니얼 최가 비보잉 춤을 선보여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특대상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른 6조가 차지했다.

이튿날 '영화로 남북관계와 북한을 이해하는 'Take6 시간에는 영화 48M를 시청한 후 감독 및 배우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Take7에서는 만나고 싶은 '나의 멘토'를 참여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함께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멘토로는 김행, 권영세,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리더십과 국제기구, 정부정책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에 대해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Take7을 끝으로 이틀간 49명이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한 'Uni Maker 시즌1'도 막을 내렸다.

▸▸ Uni Maker 시즌에서 만난 사람들 ◂◂

대니얼 최(뉴욕 공대 교환학생)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염원 임정 대장정에 참가했다가 오늘 행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북한말 퀴즈와 북한음식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사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솔직히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김종민(동국대 사학과)

고등학교 때도 민주평통이 주최하는 캠프에 가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참가하게 됐어요. 미션이 좀 힘들었고 다들 처음 본 사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 막연한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북한을 평등한 통일 파트너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최정윤(인천대 정치외교)

올해 교내에서 통일동아리를 새로 조직했어요. 통일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어 왔어요. 미션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냥 왔어요'라고 말했던 친구들인데 막상 이야기해보니까 탈북 경로나 정착과정 등에 대해 성공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오늘 통일염원을 담은 노래 공연이 너무 즐거웠고 '통일 통일 통일'하며 한 목소리로 외쳐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김학도(방송인)

통일은 반드시 될 겁니다. 폐쇄된 사회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통일이 되지 낳을까 싶어요.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얼굴을 보며 어떻게 통화를 해?' 라고 말했지만 그런 시대가 금방 도래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이뤄질 거라 믿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2015 한 · 호평화통일포럼' 성료

민주평통은 11월 11일(수) 한반도 통일준비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015 한 · 호평화통일포럼'을 호주 캔버라 연방의사당에서 개최했다. '한반도 통일과 한 · 호 협력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이숙진 호주협의회장, 김봉헌 주호주대사, 줄리비숍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학계 및 언론계, 정관계 인사들과 호주교민, 학생들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있어 호주의 지지와 협력의 중요성,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호주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당의 크레이그 론디 의원, 노동당의 마이클 댄비의원과 앤드류 리 의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2세션에서는 '한반도 통일준비와 한호 파트너십'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제5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 열어

민주평통은 10월 31일(토)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글로벌 공공외교대사 4기 임명식 및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 한국의 꿈과 희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중 · 고 · 대학생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4기 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동 노하우 및 소감을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박찬봉 사무처장은 특강에서 "우리가 만든 통일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국의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이어 비전선포식과 '한반도 통일정세 변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구본태 이사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반크 박기태 단장은 새로 제작한 통일외교 홍보자료, '거꾸로 보는 영문 세계지도'를 공개했다. 앞으로 대사 후보생들은 한 달간 주변의 외국인 및 한국인 친구, 펜팔친구에게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등 5가지 활동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과 IS한림병원 탈북민 무료진료봉사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11월 15일(일) IS한림병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인천에 거주하는 약 1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날 병원 내에 마련된 내과, 정형외과, 치과, 한방과 등의 검진소를 돌며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시력검사 후 저시력 탈북민들은 안경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김철수 의료봉사단 단장(서울 양지병원), 이정희 의료봉사단 부단장(IS한림병원 이사장) 등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활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구급함과 기념품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주었다.

원로초청 간담회 개최, 통일 · 대북정책 의견 제시

민주평통은 11월 4일(수) 이홍구 중앙일보 이사회 의장(前 국무총리, 제5대 수석부의장) 등 사회 각계 원로 19명과 함께 '원로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통일 · 대북정책의 전략적 접근 강화 ▲남남갈등 해소를 통한 통일 기반 확립 ▲통일준비 내실화 ▲북한주민 및 탈북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 EU 평화통일포럼, 벨기엘 브뤼셀에서 개최

민주평통은 10월 27일(화) 유럽연합(EU)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대표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5 한 · EU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 통일과 유럽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과 유럽의 한반도 통일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이번 포럼에는 토르비욘 프로이스네스 브뤼셀 EU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특사 겸 대사, 박종범 유럽부의장, 주벨기에대사관 김용호 총영사를 비롯해 많은 교민과 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신은숙 위원활동지원국장이 대독한 기조 연설문에서 "북한 동포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EU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 1세션은 '남북관계 발전과 EU의 협력'을 주제로, 2세션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제로 각각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 성남구협의회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열어

경기 성남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회장 김현모)는 11월 14일(토)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경기동부하나센터와 함께 '2015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누기 체험행사'를 대광사(주지 월도, 민주평통 상임위원)에서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300여 명과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5천포기의 김장을 담가서 나눠줬으며, 김장을 담그는 동안 북한음식인 감자지짐이 등을 만들어 새참으로 먹는 등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등

▲ 전남 함평군협의회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윤영수)는 10월 29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지역주민 통일공감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행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및 이장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지역 내 통일논의를 활성화 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자문위원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충남 서천군협의회

▼ 광주 동구협의회

충남 서천군협의회(회장 홍순석)는 27일 사회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광주 동구협의회(회장 김행자)는 같은 날 관내 주민센터 2곳에서 '2015년도 통일시대 시민교실 2강좌'를 열었다.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강영자)는 28일 대전시청에서 포럼위원들과 함께 '제31차 대전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지역회의 ▶

▲ 강원 평창군협의회

▲ 대구 서구협의회

▲ 부산 남구협의회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28일 포럼회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와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도 이날 한국폴리텍6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부산 남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충남 천안시협의회

▲ 강원지역회의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30일 여성단체 대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대학생 및 유학생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분과위원회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으며 강원 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같은 날 '제29차 강원평화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전남 화순군협의회 ▶

▲ 경기 과천시협의회

▲ 경북 경산시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1월 3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일지금

조달과 투자전략 통일대박요건'이라는 주제로 '통일대박 지도자양성 과정 제5강 강의'를 진행했으며,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는 4일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또한 전남 화순군협의회(회장 홍남희)는 11일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5년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우대)는 13일 은평구청에서 제2기 은평평화통일포럼 출범식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 서울 은평구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기 가평군협의회

▲ 인천지역회의

▲ 충북 단양군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0월 27~30일 가평초등학교, 청평고등학교에서 '2015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고 북한 사진도 함께 전시했다.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는 28일 인천대 컨벤션센터에서 '인천대 통일동아리 발대식 및 통일문제 토론회' 행사를 진행했으며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29일 매포중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과 파주 DMZ 일대로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충남 홍성군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30일 광흥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한반도 통일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분과 주최 제1차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전남 무안군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통일안보현장을 돌며 '2015년 통일체험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10월 31일 무안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무안군민들과 함께 '청소년 글짓기 대회 및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 영광군협의회

▲ 경기 오산시협의회

▲ 강원 양양군협의회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1월 2~3일 파주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청소년 통일 안보 캠프'를 개최했으며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3일 오산중학교 학생등과 함께 파주DMZ를 견학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는 4~5일 관내 어린이집 4곳에서 '찾아가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다.

▲ 경북 상주시협의회

▲ 경기 구리시협의회

▼ 전남 광양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5일 상주 상산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도전 올려라 나라사랑 통일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신영출)는 관내 중학생 및 담당교사들과 함께 '철원군 일대 DMZ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또한 이날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관)는 광양백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으며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구)는 동광중학교에서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강원 고성군협의회 ▶

◀ 경북 고령군협의회

▲ 경기 여주시협의회

▲ 전북 정읍시협의회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이상용)는 6일 새마을 동아리 학생, 인솔교사 등과 함께 해군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과 참수리호를 견학했으며,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는 파주 일원에서 여주제일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유남영)는 7일 관내 고등학생들과 비무장지대로 '통일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울산지역회의

▲ 경기 양평군협의회

▲ 경남 밀양시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울산지역회의 청년위원회(부의장 정영자, 위원장 배병인)는 9일 '울산대 통일동아리발대식 및 대학생통일토론회'를 열었으며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이날 인근 부대에서 원덕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과 함께 '청소년 통일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11일 밀양중학교에서 '2015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도 11일 안용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1일 통일교실'행사를 진행했다.

▲ 경남 김해시협의회

▲ 경남 통영시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1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2015 청소년 통일안보 체험'을 진행했으며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같은 날 경상대학교에서 '대학생 통일동아리 발대식 및 통일안보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12일 충주상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경기 이천시협의회

▲ 충북 지역회의

▲ 경남 고성군협의회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여성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북한이탈여성들과 함께 10월 26~27일 강원도 평창일원에서 '여성 통일 공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제주도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견학'을 다녀왔다.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1월 1일 설봉공원에서 시도의원 및 북한이탈주민,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 경북 지역회의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경북 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6일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통일 여성화합한마당'을 개최했으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7일 한국민속촌에서 탈북청소년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탈북청소년 멘토단 소통 어울마당'을 열었다.

▲ 대전 서구협의회

▲ 서울 중구협의회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8일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에서 '먼저 온 통일과 함께하는 통일동행 걷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여성분과 주관으로 10일 관내 한 농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015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문화 확산

▲ 경기 군포시협의회

▲ 서울 강남구협의회

▲ 강원 춘천시협의회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백영자)는 10월 23일 샨본로데오거리에서 '제9회 평화통일기원 군포시민노래자랑'을 실시했으며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헌)는 23~24일 포천 일대 군부대 등에서 안보체험 및 강연 등 '2015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23~24일 고성 화진포,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인천 계양구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 경기 광명시협의회

◀ 광주지역회의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25일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염원 축구대회'를 열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27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역량강화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길)는 29일 경기도 연천 일대로 통일시대 시민교실 수료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염원 현장체험'을 실시했으며, 같은 날 광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부의장 최상준, 위원장 박영희)는 시청에서 지역 여성리더들과 함께 '통일줌마 수다떨기' 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 나주시협의회

▼ 경남 거창군협의회

▼ 전남 구례군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10월 30~31일 전문강사 초청강연회와 판문점 및 통일전망대 등 안보견학을 연계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진창언)는 31일 제1회 마한축제가 펼쳐진 국립나주박물관일대에서 남북예술단 공연과 더불어 '통일대박 메아리 외치기' 행사를 실시했다.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도 이날 피아골단풍제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대박 손수건을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나눠줬다.

▲ 경기 부천시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4~5일 강원도 고성으로 '자문위원 연수 및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으로 7일 김천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통일대박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강원 속초시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경기 의왕시협의회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9~11일 천안함, 포로수용소 등지에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헌)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장병들과 함께 9일 관내에 소재한 다부동 전승비 근처에서 '가을맞이 대청소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0일 봉사단회원 및 시민 등과 함께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브라질협의회(회장 박대근)는 10월 29일 상파울로에서 주대한민국브라질 이정관 대사를 초청해 '차세대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많은 교민과 정치인, 한인 차세대들이 참가했다. 이정관 대사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인 차세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의 미래 리더인 차세대들이 조국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양하며 브라질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LA협의회(회장 임태랑)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의 자문위원들을 LA로 초청해 11월 2일(월)부터 8일(일)까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쳤다. LA협의회와 부산지역회의는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서로 지역을 번갈아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지역 자문위원 38명이 LA를 방문,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합동 통일 세미나를 열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두 지역 자문위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추모했다.

중국지역회의 (부의장 이창호)가 주최한 '세계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1만5천리 통일염원 임정대장정'이 상하이 루쉰공원 방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대장정 팀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0월 26일 다롄 뤼순감옥에서 출발해 단동, 충칭, 류저우 등의 지역을 돌며 임시정부청사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 후 8박 9일의 여정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대원들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과 해방까지의 역사를 따라 임시정부 현장 등을 방문하는 동안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정 팀은 이튿날 홍커우 공원 내 매헌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는 11월 7일(토) 베이징시 화이로구 인근 인제공원에서 '제5회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했다. 400여 명의 한인교민, 대사관 관계자, 유학생 등은 이번 대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며 인제공원 숲길을 걸었으며, 2부 행사로 마련된 조별 장기자랑 대회, 통일골든벨 OX퀴즈 대회, 부녀 팔씨름 대회 등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걷기대회'는 지역 내 유일한 범 교민 행사이며, 교민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단합된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조성혁)는 11월 7일(토) 둘루스에서 제3회 '도전 통일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한인 청소년 35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영어, 한국어로 문제가 출제됐고 화이트 보드에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돌발퀴즈 등을 실시하는 등, 함께 문제를 풀면서 즐겁게 통일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 우승은 콜린스힐 고등학교 10학년 박우빈 군이 차지했다.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회장 권석대)는 10월 23(금)과 25일(일) 라스베가스 피닉스지회의 뉴멕시코분회와 애리조나분회에서 각각 자문위원 워크숍 및 통일강연, 동포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23일 열린 뉴멕시코분회 행사에는 전 · 현직 한인회장, 한글학교 교사, 교계 지도자 등이 참석했으며 25일 개최된 애리조나분회 행사에는 피닉스와 투산의 전 · 현직 한인단체장, 종교인 및 애리조나 한인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한편,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는 내년 4~5월 중 '통일골든벨대회'를 개최해 참가 학생들을 주니어 평통으로 임명하고, 학생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인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철없던 시절, 새로 바뀐 짝꿍이 마음에 들지 않아 책상에 선을 긋고 이쪽과 저쪽을 나눴다. 선을 넘어오면 네 지우개도 내 것, 네 연필도 내 것이 된다 윽박지르자 곰곰이 듣고 있던 녀석이 자신의 손가락이나 팔이 넘어가면 그것도 네 것이 되냐고, 마음속으로 선을 넘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한참을 고심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넘어와도 된다고 답했다.
우린 정말 그 선을 38선이라고 불렀다. 오직 마음만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선위로 놓인 철로를 따라 기차가 달린다. 차창 밖 우리 땅 어디를 가도 마주할 수 있는 흔한 이 계절의 풍경이 스쳐지나간다. 너무 익숙해 오히려 낯선, 선 저쪽의 땅에도 분명 같은 계절이 흐를 것이다. 왜 하필 지금 그곳을 가야하냐 따져 묻지 말자. 더 이르게 찾아가지 못해 지금에서야 떠난 이미 아주 늦은 여행이니까.
2015년 마지막 여행지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 비무장지대(DMZ)다.

멈춰 섰던 철마, 다시 달리기 시작하다 'DMZ 트레인'

잘 벼린 칼날처럼 경계가 삼엄한 남북한의 국방경계선. 당연히 민간인 통제지역(민통선)이다. 인적이 드물어, 스산했던 그 곳 주변으로 끊겼던 철로가 이어지고 멈춰 섰던 철마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딱 한 발자국이지만 북한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다. DMZ 주변이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개통된 DMZ트레인의 영향이 크다. 평일 낮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역에서 출발한 도라산 행 DMZ트레인은 만석이다. 총 세 칸짜리 관광용 트레인이라지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부터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과 젊은 연인들, 봄날의 병아리마냥 노란 원복을 맞춰 입은 유치원생까지 기차 안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은 놀라울 만큼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매점 앞에 줄을 섰던 개구쟁이 녀석들이 남북분단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장식된 차량 벽면을 기웃거린다. 한국전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원래 하나였으니까 통일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덕분일까. 통일과 사랑, 화합을 테마로 화려하게 장식된 차량 안은 유독 반짝반짝 겨울 햇살이 넘쳐난다.

북으로 향하는 철길, '경의선과 경원선'

DMZ트레인은 서울에서 출발해 임진강과 도라산 역으로 향하는 경의선과 서울, 청량리를 거쳐 연천, 백마고지로 향하는 경원선 두 개 노선으로 나눠 운행 중이다. 사실 목적지만 다를 뿐 최종 도착지인 도라산과 백마고지 역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통선 안에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 역을 가보겠단 욕심에 고민 끝에 경의선에 올랐다. 덜컹거리는 기차의 흔들림에 익숙해 질 쯤 임진강에 도착한다. 목적지인 도라산 역에 가기 위해서는 임진강에서 출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이 필수다. 엄격한 표정으로 인원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군인들의 서슬에 긴장한 것은 겁 많은 어른들 뿐.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개구쟁이 초등학생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다. 인원점검이 끝나 다시 출발한 기차 안이 북적이기도 잠시, 한국전쟁 당시의 치열했던 흔적들이 느리게 창밖으로 지날 때마다 짧은 정적이 이어진다.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와 한 번 멈춰선 뒤 두 번 다시 달리지 못하고 있는 녹슨 철마 그리고 철조망들이 새삼 우리가 하나였다 둘이 됐음을 깨닫게 한다.

마음의 거리가 더 먼 그 곳, '도라산전망대와 도라산평화공원'

마침내 종착역인 도라산 역에 도착한다. 주변 안보관광지 시설 이용권과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용권을 구입했다면, 도라산 역 앞에 정차된 버스에 올라타면 된다. 탁 트인 들녘을 달려 닿은 첫 번째 관광지는 도라산 전망대다. 이곳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북쪽 땅을 바라보면 개성 송악산과 김일성 동상, 장단역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물리적으로 지척이지만 마음만은 멀고 험한 거리. 바로 그곳에 북한이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북한의 풍경에 긴장을 풀기도 잠시 사람 손으로 팠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좁은 제2 땅굴을 방문하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진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슬그머니 다시 녹기 시작한 것은 도라산 역 인근의 도라산평화공원에 도착해서다. 분단의 현재와 통일의 내일을 꿈꾸는 다양한 조형물로 꾸며져 있는 공원에서 제일 먼저 시선을 붙잡는 것은 '분단의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은빛의 반짝이는 탑이다. 탑 주변으로는 사진전과 아담한 호수가 자리하고 있어,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계절이 좀 더 깊어져 희끗희끗 흰 눈발이 휘날리는 날에 찾아도 좋을 것이다.

남쪽의 마지막이 아닌 북쪽으로 향하는 처음, '도라산 역'

다시 자박자박 길을 걸어 도라산 역으로 향한다. 최근 도라산 역사 안팎은 '통일로 가는 플랫폼'이란 주제 아래 특별한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평화를 적은 '통일의 문',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도',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을 오갔던 미군 우편화차 등을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플랫폼 이정표에 선명하게 새겨진 다음 정거장의 이름이다. 발이 묶인 철마가 제대로 달린다면 도라산 역 다음 정거장은 개성 역일 것이다. 물끄러미 북쪽을 향해 길게 뻗은 철로를 바라본다. 절절한 사연이나 남다른 애국심이 없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한마음으로 기원하게 된다. 도라산 역이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수 있기를.

본래 하나였던 땅, 이 계절 같은 풍경이 흐르다 '임진각 국민관광지'

도라산 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다시 임진강 역에서 몸을 푼다. 임진강 역에서 5분 거리에는 임진각 국민관광지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이곳에서는 황해도 한포역에서 출발해, 개성을 지나 장단역 부근에서 폭격으로 멈춰서야 했던 마지막 경의선 증기기관차와 분단된 국토를 잇는 통로인 83m 길이의 자유의 다리를 볼 수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남북한 똑같이 맞이한 이 계절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투박하지만 따뜻하게 준비한 한 끼

DMZ 주변 관광의 매력 중 하나를 더 꼽자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의 자연을 빼놓을 수 없다. 돗자리 하나만 있다면 어디든 피크닉 장소로 손색없어, 삼삼오오 도시락을 펼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처 도시락을 못 챙겼다면 민통선 안 실향민 거주지역인 통일촌이나 임진각 주변의 식당을 찾아도 좋다. 질 좋은 콩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지역답게 대부분의 식당이 직접 담근 장을 이용해 찌개나 전골 등을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끓여낸다. 특히 통일촌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뷔페식으로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도 있다. 반찬 수는 적지만 담백한 맛에 한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게 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가장 특별하고 위험하다는 군사경계 지역이란 사실이 희미해질 만큼 잘 웃고, 잘 걷고, 잘 먹고, 잘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 온 아이들은 여행을 마치며 기차 내 비치된 기념엽서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통일이 되자'고 눌러 적는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 하지만 아직 되지 못한 일. 하나였던 땅이 둘이 된 고통을 이 아이들이 깨닫기 되기 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글. 사진 / 권혜리〉

사랑이 꽃피는 통일 대한민국!

이택종

그래~ 통일되고 경제가 활성화면서 복지도 좋아졌잖니. 그 덕분에 엄마아빠 결혼하고 신혼집 구하기도 쉬웠고, 너희 뒷바라지도 부담이 적었지!
그렇네~ 우리도 직장이 안정되니까 연애도 편하게 생각하는 걸~ 아니 잠깐!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사랑이 꽃피는 건데?
자식 걱정 줄어들고 살기 편해지니 식었던 정열도 다시 불타오르고, 요즘은 황혼이혼이 아닌 황혼연애라고 하잖니.
아우 이 철딱서니 없는 것아. 그만 좀 먹어. 그거 니 아버지꺼야~.
버럭
찔끔
힝! 엄마는 아빠만 좋지!!
아~니. 난 살기 좋은 통일대한민국도 좋다. 넌 삼순위야~.
여봉~. 사과 드세용~.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고슬고슬한 밥을 그릇에 담고 따끈한 국물과 각종 재료를 얹어 먹는 요리 온반. 북한의 겨울철 대표 전통요리로 닭고기 대신 꿩이나 쇠고기를 고아 만들기도 한다. 여러가지 재료를 각각 볶거나 삶아 마지막에 합치기 때문에 식재료 고유의 맛을 각각 느낄 수 있으며, 뜨끈한 국물로 속을 든든히 채우면 차가운 칼바람도 더운 몸을 식히는 훈풍으로 변하게 된다.

요리재료

멥쌀 600g, 닭고기 250g 느타리버섯 50g, 계란 1개, 실고추 1g, 대파 1뿌리,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작은술,

닭고기용 양념 : 간장 2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½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약간

버섯양념 : 간장 2큰술, 다진파 2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녹두지짐 : 녹두 ½컵, 식용유 2큰술, 소금 ½작은 술

양념간장 : 간장 4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½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요리방법

1 닭은 깨끗하게 손질한 뒤 미지근한 물에 넣어 삶는다. 10분 정도 삶다가 소금을 넣고 다시 20~30분간 더 삶는다.

2 삶은 닭고기 살을 찢은 뒤 미리 준비해둔 닭고기용 양념으로 무친다.

3 느타리버섯은 소금을 넣고 데친 후 닭고기와 같은 굵기로 찢어 버섯양념을 넣고 볶는다.

4 물에 불린 녹두를 물과 1:1 비율로 섞어 블렌더에 갈아 소금간을 한다. 중불보다 조금 강한 불에서 팬에 식용유를 충분히 두른 후 지진다.

5 계란은 황백 지단을 부쳐 가늘게 채썬다.

6 그릇에 밥과 녹두지짐을 담은 뒤 양념한 닭고기, 볶은 버섯을 얹는다. 뜨거운 닭 국물을 붓고 채썬 파, 실고추, 지단으로 고명을 올린 다음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 요리연구가_ 박민지

잔치음식 '평양온반'의 유래는?

평양온반은 평양랭면, 대동강숭어국, 녹두지지미와 함께 평양에서 손꼽히는 대표음식이다. 남한에서는 평양온반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 음식을 집에서 자주 해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애란 원장에 따르면 평양온반은 사랑하는 남녀의 애틋한 마음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한다. 평양성에서 사랑을 나누던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자 여자는 한겨울에 애인을 위해 뜨거운 육수에 음식을 말아서 몰래 갖다 줬고,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랑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이 음식이 바로 평양온반인데 이후 북한에서는 평양온반을 결혼식 잔치 음식으로 준비하곤 한다고.

통일 책갈피 당선작

꽃보다통일

통일에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다.

오토바이

내게 소원 3개를 들어준다면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이어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모든 이산가족의 마음이 백범 김구선생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의 맘을 알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밍키

다음 내리실 역은 평양입니다.

바쿠이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우리는 한반도 안에 있다.

코코아

발터 몸퍼(Walter Momper) 당시 베를린 시장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어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몰텐

화성에서 온 남과 금성에서 온 북은 어떻게 날마다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까요?
– 개성공단 사람들 중에서

카이저

통일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통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

란돌살앙

한반도의 벨트를 풀자!!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핑퐁홀릭

1.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수리수리마수리 통일을 이뤄 주세요!
   통일도 마술처럼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3.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2025 타임캡슐

(오늘보다 더 빛나는
통일한국에 살고있을 나에게)

2015년 오늘!
10년후 통일한국에 살고 있을 나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통일한국에서 빛나고 있을
나를 잘표현할수록 당첨 Up!

응 모 기 간 2015.11.27 ~ 2015.12.13
응 모 방 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 첨 자 수 5명
시 상 내 역 문화상품권 2만 원
당첨자발표 12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통일의 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의 별〉이 숨어있어요~
통일의 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뜰 거에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별을 찾으러 GO GO!!

응모기간 2015.11.27 ~ 2015.12.13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3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라떼

당첨자발표 12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이벤트 당첨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 등불을 밝혀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 아이디	이름
1	**b9587	장편한내과
2	**070	제임스유
3	**kang313	강가딘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 아이디	번호	이메일 아이디
1	**p3shin	16	**nwool0710
2	**c6055	17	**dgkr37
3	**09	18	**dhlee
4	**2sg	19	**ereyetg
5	**o403	20	**kksshot
6	**some	21	**cacdpu
7	**lfkr95	22	**mkj3444
8	**relagoon	23	**mk28
9	**hlove1990	24	**gjohn2
10	**foodstyle	25	**go1004
11	**co3634	26	**s055
12	**hlove1990	27	**tistlyj
13	**lsasss	28	**meend

14	**ses90	29	**wlqkf
15	**oung2866	30	**c11th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